

대통령 '입'만 보는 내각... 질책 뒤에야 대책

밀양송전탑·어린이집 지침 주자 움직여... 책임장관제 무색

새 정부 내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만 기다리며 소신 있게 일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비판하거나 지침을 준 다음에야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사태를 풀리는 모습이 종종 연출되면서 '책임장관제'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 같은 현상은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나타나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적기만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받아 적지만 말고 토론 좀 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밀양 송전탑 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움직임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지가 7~8년은 됐는데 그 세월 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 시작 후에도 성의를 갖고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를 때번 들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한전의

정협의를 가진 것도 비슷한 사례로 보인다.

대통령의 강한 주문이 잇따라서 영유아 보육시설의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박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책임장관제'와 거리가 있다는 점이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다.

장관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처의 업무나 정책을 추진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여전히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만 '바라보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현상은 새 대통령의 성향을 과파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일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를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만 모든 것을 꼼꼼히챙기고 지시하는 박 대통령의 업무스타일도 문제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무위원들과 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로부터 대통령 통치 스타일이 직언을 하거나 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대통령은 중요한 부분만 지적하고 장관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청옆 특급호텔 이번엔 성사될까

대기업 1000억원 들여 추진

U대회 본부호텔 지정 검토

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특급호텔 부지매입과 건축비 등을 포함할 경우 건립비용이 1000억원 정도 투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특히 특급호텔 공사기간이 18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2015년 광주하게유니버시아드 개최 이전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대회본부 호텔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광당 340만원대 특급호텔부지 는 중심상업용지로 용도변경되어, 이 경우 광당 땅값도 620만원으로 상승해 총 320억원의 매매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이 부지에 특급호텔 건립 의사를 밝혔던업체들은 용도변경이나, 감정평가에서 620만원이 책정되자 사업성이 없다며 모두 포기했다.

다행히 이번에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이 기업은 이 같은 땅값도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특급호텔 건립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임대아파트 부지 변경 예산낭비"

경실련 기재부에 신고... 감사원 감사 청구키로

광주시가 상무지구 일부 주민의 반대에 밀려 영구임대아파트 건립부지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기획재정부에 예산낭비로 신고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지역 주민의 집단이기주의에 굽복해 다른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토지매입에만 30억 이상의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돼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 경실련은 "광주시가 사회적 약자들의 거주공간인 영구임대아파트 대상지를 재산피해 등을 주장하는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공공 임대 주택 정책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잘못된 행태"라며 "상무소각장 인근 1만

5495㎡ 부지에 29㎡와 39㎡ 규모의 임대아파트 786가구를 짓기로 한 사업계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경실련은 또 "시의 주장대로 대체부지를 통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다면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시가 공개토론회를 계속 거부하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이우현 도시재생 과장은 "상무지구 부지는 삼부소각장 이전과 연관되는 등 복합민원지역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추가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며, 2015년 준공 계획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열린법원' 컨퍼런스

광주지법은 '열린 법원, 함께 만드는 조정제도'라는 주제로 30일 오후 광주지법 대회의실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법원 차원의 컨퍼런스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수렴된 의견은 향후 법원의 조정과정에 적극 반영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이전 재원 부족 정부 지원 시급"

광산구의회 김명수 의원



행령'을 분석한 결과 현 군 공항 부지를 매각한 예산으로 이전 사업이 가능한 곳만 이전을 추진한다'고 명시

지난 4월 공포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시행령만으로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 광산구의회 김명수 의원(우산·신창·월곡동·사진)은 30일 "광주 군 공항 이전비용이 최소 3조 원에 이르지만, 부지 매각대금은 이보다 1조원 암啪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1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

돼 있어 국방부의 시행령을 근거할 경우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행령 수정안으로 ▲재원조달 관련 군 공항도 이전사업 검토할 수 있도록 이전대상 군 공항 법

법 ▲종전부지 차지단체장에게 이전 지역 지원 ▲지난 4월 1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군공항 부지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개>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 각 물 건		비 고
	소 재 지 및 면 적 [㎡]	용 도	

[아파트]	1	영광군 흥농동 상하리 323-1 청미래아파트 102동 1층 107호 51,14㎡	아파트	33,000,000
				33,000,000
2	2	동소 323-1 청미래아파트 102동 1층 108호 51,14㎡	아파트	33,000,000
	3	동소 323-1 청미래아파트 102동 3층 308호 51,14㎡	아파트	35,000,000
4	4	동소 323-1 청미래아파트 102동 4층 408호 51,14㎡	아파트	33,000,000
	5	동소 323-1 청미래아파트 102동 5층 503호 51,14㎡	아파트	33,000,000
6	6	동소 323-1 청미래아파트 102동 5층 506호 51,14㎡	아파트	33,000,000
	7	동소 323-1 청미래아파트 102동 5층 508호 51,14㎡	아파트	33,000,000
2012타경 8275	1	광주광역시 북구 훙동로 99, 102동 12층 102호 202호 96.64㎡	아파트	129,000,000
2012타경 26587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764-2 서라아파트 32186	아파트	95,000,000
2012타경 33311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763-2 첨단8차 단지아파트 306호 501호 59.93㎡	아파트	88,000,000
2012타경 34144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777-1 운남주공 3단지아파트 306호 501호 49.69㎡	아파트	80,000,000
2012타경 34717	1	당암구 달암길 미리산길 2, 102동 4층 506호 1호 [청진아파트] 131,82㎡	아파트	105,000,000
2012타경 35468	1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14, 8층 813호 59평 0.44㎡	아파트	79,000,000
2012타경 35901	1	광주광역시 품목 무동로 374, 113동 5층 5호 [법원경매] 154,3492㎡	아파트	359,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	광주광역시 북구 유풍 73-8 182㎡	대	94,556,880
2012타경 36072	1	동소 73-8 54.54㎡ 부속건물 광 7.27㎡ [현황:월성1동]	대	94,556,880
[연립주택/다세대/빌라]	1	광주광역시 품목 무동로 374, 113동 5층 5호 [법원경매] 154,3492㎡	다세대	42,000,000
2012타경 32032	1	영광군 흥농동 상하리 140 하원빌라 1동 4층 403호 59.48㎡	아파트	42,000,000
[대지/임야/전답]	1	화순군 북면 옥리 626-8 517㎡ [공유자최명] 속지분 14분의3 전부 [면적증명] 1633.3㎡	임야	17,061,000
2012타경 967	1	화순군 북면 옥리 626-8 517㎡ [공유자최명] 속지분 14분의3 전부 [면적증명] 1633.3㎡	임야	17,061,000
[도로/수지구역]	1	화순군 도암면 정천리 716-1 311㎡ [현황:토지임, 맹지임] 도로 1633.3㎡	전	1,244,000
2	2	화순군 도암면 정천리 716-1 311㎡ [현황:토지임, 맹지임] 도로 1633.3㎡	전	630,000
3	3	화순군 도암면 정천리 716-1 311㎡ [현황:토지임, 맹지임] 도로 1633.3㎡	전	3,290,700
4	4	화순군 도암면 정천리 716-1 311㎡ [현황:토지임, 맹지임] 도로 1633.3㎡	전	4,200,000
5	5	화순군 도암면 정천리 716-1 311㎡ [현황:토지임, 맹지임] 도로 1633.3㎡	전	3,584,000
6	6	화순군 도암면 정천리 716-1 311㎡ [현황:토지임, 맹지임] 도로 1633.3㎡	전	3,584,000
7	7	화순군 도암면 정천리 716-1 311㎡ [현황:토지임, 맹지임] 도로 1633.3㎡	전	3,484,000
8	8	화순군 충양면 양곡리 832-1 869㎡ [농지, 농지지적증명요, 현황:북부, 달지임, 맹지임] 도로 238㎡	임야	1,497,000
		화순군 충양면 양곡리 832-1 869㎡ [농지, 농지지적증명요, 현황:북부, 달지임, 맹지임] 도로 238㎡	임야	1,497,000
		화순군 충양면 양곡리 832-1 869㎡ [농지, 농지지적증명요, 현황:북부, 달지임, 맹지임] 도로 238㎡	임야	1,497,000
		화순군 충양면 양곡리 832-1 869㎡ [농지, 농지지적증명요, 현황:북부, 달지임, 맹지임] 도로 238㎡	임야	1,497,000

[기타]	15	국설공 곡성읍 신기리 452-1 605㎡ [공유자주소] 주총현지분 12분의2 전부 [면적증명] 1633.3㎡	전	1,948,000
1,948,000				

<tbl_r cells="5" ix="1" maxc